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결과 확인서

수험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도	학교명(학원명)	반	번호
	최연우	남					
영역 구분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한문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미적분		물리학I	생명과학II	-
표준점수		139					
백분위		99					
등급		1					

※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여 수험생 본인의 실력을 중간 점검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본 성적 자료를 대학입학전형 자료나 타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본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3년 01월 2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결과 확인서

수험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도	학교명(학원명)	반	번호
	최연우	남					
영역 구분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한문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미적분		물리학I	생명과학II	-
표준점수		123					
백분위		89					
등급		2					

※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여 수험생 본인의 실력을 중간 점검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본 성적 자료를 대학입학전형 자료나 타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본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3년 01월 2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출신고교(반 또는 졸업 연도)			
	최연우		남				
영역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한문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미적분		물리학I	생명과학II	프랑스어
표준점수		130					
백분위		99					
등급		1					

- 백분위는 수험생이 받은 표준점수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수험생 집단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점수임.
- 등급은 정수로 표기된 표준점수의 분포를 1~9까지 9개 구간으로 나눈 것으로 1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임.
단, 표준점수가 없는 영역의 등급은 원점수의 분포를 9개 구간으로 나눈 것임.
- '-'는 영역(과목)을 선택하지 않았음을 나타냄.
- '*'는 선택한 영역(과목)에 결사하였음을 나타냄.

2023년 01월 2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문서확인번호 4212-2209-2924-0985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출신고교(반 또는 졸업 연도)		
	최연우		남			
영역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한문
		화법과 작문	미적분		물리학	생명과학
표준점수		134				
백분위		98				
등급	1	1	1			-

- 백분위는 수험생이 받은 표준점수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수험생 집단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점수임.
- 등급은 점수로 표기된 표준점수의 분포를 1~9까지 9개 구간으로 나눈 것으로 1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임. 단, 표준점수가 없는 영역의 등급은 원점수의 분포를 9개 구간으로 나눈 것임.
- '-'는 영역(과목)을 선택하지 않았음을 나타냄.
- '*'는 선택한 영역(과목)에 결시하였음을 나타냄.

2024년 12월 0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본 성적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s://csatreportcard.kice.re.kr)의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 내용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다만, 문서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

목차

기출을 봐야 하는 이유

시기

방법

독서 지문 독해의 태도

추가) 실전에서의 시간 분배

연습용 자작 문제

1. 기출을 봐야 하는 이유

독서, 문학을 막론하고 기출 분석은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작게는 평가원 문제의 느낌을 체험해볼 수 있고 운이 좋다면 직접적인 내용상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각종 사설 모의고사들은 따로 찾아서 풀지 않았고, 학원에서 제공해주었던 것만 한 번 풀어보고 점수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교육청 기출 문제와 평가원 기출 문제를 실제 시험지와 같은 배치로 편집한 문제집을 실전 사설 모의고사처럼 풀며 시험장에서 필요한 태도, 시간 분배 방법은 물론 언어갈 만한 배경지식까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설 모의고사: 풀어서 나쁠 건 없다. / 기출: 풀어보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

1-1) 실제 사례

수능 4일 전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를 풀었던 저는 2022년 11월 17일 수능 국어 시험지를 훑어보면서 반가운 지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7학년도 6평에서 출제되었던 고전 산문인 '최척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작품의 다른 부분이 지문으로 나왔지만 해당 작품을 풀어보았다는 생각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고 대략적인 흐름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시기

제가 했던 국어 공부들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	수능 공부	수능특강 문학	수능특강 독서	수능완성
2021년 12월 말~2022년 3월 (겨울방학)	인터넷 강의용 본교재 + 수강하던 인강의 숙제 교재 + 교육청 기출(3월 모고 대비)	-	-	-
2022년 4월~2022년 5월 초 (내신 대비 기간)	-	내신 범위	-	-
2022년 5월 초~2022년 6월 초	인터넷 강의용 본교재 + 수강하던 인강의 숙제 교재	-	-	-
2022년 6월 초~2022년 7월 초 (내신 대비 기간)	-	내신 범위	-	-
2022년 7월 초~2022년 8월 중 (1학기 말~여름방학)	인터넷 강의용 본교재 + 수강하던 인강의 숙제 교재 + 당해 3, 4, 6월 모고 정리	-	-	처음부터 풀이 시작
2022년 8월 중~2022년 9월 말	인터넷 강의용 본교재 + 수강하던 인강의 숙제 교재	내신 때 안한 부분 풀이 시작	약했던 주제부터 풀이 시작	↓

2022년 10월~수능 직전(11/15)	평가원 기출 풀기	↓	↓	↓
------------------------	-----------	---	---	---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추천하는 ‘평가원’ 기출 풀이를 시작하는 시점은 수능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앞둔 9월 말~10월 초입니다. 왜냐하면 1년 국어 공부의 큰 틀은 **전반적인 독해능력 향상하기** → **향상된 독해 능력을 평가원 문제에 적용하기**의 순서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능에서 직접 내용적인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평가원 기출문제를 수능과 가까운 시점에 풀어봄으로써 수능장까지 그 기억을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은 15~30회분의 평가원 기출 시험을 1일에서 3일에 한 회 정도씩 풀어보는 것을 목표로 할 때의 시점이고, 더 많은 평가원 기출을 목표로 하거나 기출 풀이 사이의 틈을 늘리고 싶다면 그에 맞게 기출 풀이 시작 시점을 앞당기면 됩니다.

교육청 기출 문제를 평가원 기출 문제보다 먼저 풀어볼 것을 추천하는 이유는 **가장 퀄리티 좋은 실전 모의고사=평가원 기출, 그 다음으로 퀄리티 좋은 실전 모의고사=교육청 기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문제의 퀄리티가 높은 국어 문제는 ‘지문에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혹은 선택지를 지울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되 지문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이해를 요구하거나 꼼꼼하게 찾아야 발견할 수 있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예외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교육청 기출 문제를 풀면서 비포장도로 같은 문제와 부딪혀보면 평가원 기출 문제를 풀 때 상대적으로 포장도로를 달리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3. 방법

들어가기에 앞서

2022학년도 수능(2021년 시행, 2003년생 현역)부터 수능 국어가 개편되었습니다. 선택과목이 생기면서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 것이 주된 변화였습니다. 따라서 2021학년도 기출 문제는 시험지를 직접 내려받아 인쇄하더라도 변경된 수능 시험지와는 양식이 다릅니다. 물론 본인이 고른 선택과목의 문제만 풀면 되지만 실제 수능 시험장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기에 시중에 나와 있는 개편된 양식에 맞게 편집된 기출 문제집을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선택과목의 선정은 개인차가 매우 클 뿐 아니라 제가 언어와 매체를 제대로 해보지 않았기에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개인적인 경험과 주변 친구들의 사례를 토대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면 좋은 경우를 조심스럽게나마 제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만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1. 표준점수가 중요하지 않고 일정 등급만으로 수시 전형 최저를 맞추려는 경우
2. 공통 영역(독서, 문학) 이외의 국어 공부를 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3. 기본적으로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것에 자신이 있는 경우

제1교시

국어 영역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경세포는 ‘뉴런’이라고도 **㉠** 불리며 감각 기관이 받아들인 정보나 뇌, 척수 등의 중추신경계에서 운동 기관으로 보내는 명령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가령 어떠한 물건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잡는 일을 한다면 눈에서 **㉡** 받아들인 시각 정보가 뉴런을 거쳐 뇌로 전달되고 뇌에서 **㉢** 내린 물건을 잡으라는 명령이 뉴런을 통해 각종 근육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이때 신경세포를 거치는 정보, 명령은 전기 신호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 전기신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신경세포도 세포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세포들처럼 세포막에 의해 세포 내부와 외부가 구분된다. 신경세포가 전기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포 내부와 외부에 전위차 즉, 전기적인 위치의 차이가 존재해야 한다. 실제로 인간의 뉴런은 아무런 신호가 없을 때 세포 내부가 세포 외부에 비해 -70mV의 전위를 가지며 전기 신호가 오면 +30mV까지 **㉣** 상승했다가 다시 -70mV로 **㉤** 회복된다. 정온동물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세포 내부의 막전위를 -70mV로 유지하는 것이다.

일정한 전위를 유지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칼륨 펌프’이다. 이 단백질 펌프는 끊임없이 1개의 ATP를 분해하여 나트륨 이온 3개와 칼륨 이온 2개를 이동시키는데, 항상 나트륨은 세포 외부의 농도가, 칼륨은 세포 내부의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해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 각각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비자발적인 반응인 능동수송을 이용한다.

능동 수송을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는 아래 공식을 이용해 자유에너지의 형태로 계산할 수 있다.

$$\text{자유에너지}(J/mol) = \text{기체상수} \times \text{절대온도} \times \ln \frac{\text{세포 내부 농도}}{\text{세포 외부 농도}}$$

체온 36.5도에서 능동수송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계산하면 약 1830J/mol 이며 이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인 성인 남성의 하루 기초대사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양이다.

이렇게 뉴런 내부가 평상시에 -70mV를 유지하면서 비로소 전기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고,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각각의 이온 통로를 통해 농도차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확산을 통해 차례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전위차가 +30mV바뀌게 되며, 확산을 할 때에는 나트륨-칼륨 펌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바뀐 전위차로 인해 발생한 전기적인 신호는 주위로 이동하면서 감각기관, 운동기관 그리고 중추신경계의 신호를 서로에게 전달한다.

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눈으로 물체를 보는 과정에 신경세포가 관여한다.
 - ② 신경 세포 내부에는 외부에 대한 전위차가 존재한다.
 - ③ 나트륨-칼륨 펌프는 단백질로 구성된다.
 - ④ 나트륨-칼륨 펌프는 1개의 ATP를 이용해 능동수송을 한다.
 - ⑤ 뉴런은 항상 -70mV의 전위차를 유지한다.

2. 밑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은 모두 중추신경계와 정보를 주고받았군.
 - ② 세포 내부의 전위가 +30mV가 되면 나트륨 이온은 세포 외부에서 내부로만 이동하겠군.
 - ③ 세포 내부에 비해 세포 외부의 이온 농도가 높다면 능동수송에 필요한 에너지는 작아지겠군.
 - ④ 평균적인 성인 남성의 하루 기초대사량은 약 5490J/mol이겠군.
 - ⑤ 정상 체온보다 높은 상태에서 나트륨-칼륨 펌프가 평상시와 동일한 작용을 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군.

3. 밑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은?
- ① 뉴런에서 정보 전달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어떤 형태인가?
 - ② ‘나트륨-칼륨 펌프’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 ③ 정온동물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④ 인체 외부에서 더 높은 농도를 갖는 이온은 무엇인가?
 - ⑤ ATP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4.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자유에너지는 열역학적 퍼텐셜 에너지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고립계에서는 엔트로피(무질서도)가 증가하는 현상만 일어난다”는 열역학 제2법칙의 엔트로피와 증감이 반대인 개념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면 자유에너지는 감소하고 엔트로피가 감소한다면 자유에너지는 증가한다. 열역학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은 자발적인 현상이므로 자유에너지가 감소하는 현상 역시 자발적인 현상이다.

- ①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능동수송될 때 자유에너지 변화량의 부호는 (-)겠군.
- ② 뉴런이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만 일어나겠군.
- ③ 일부 나트륨-칼륨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자유에너지가 증가하는 반응이 증가하겠군.
- ④ 일부 나트륨-칼륨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은 그대로이겠군.
- ⑤ 체내에 엔트로피 변화량의 부호가 (-)인 다른 반응이 있다면 능동수송보다는 확산에 가깝겠군.

5.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일컬어지며
- ② ㉡: 수용(受容)한
- ③ ㉢: 하달(下達)한
- ④ ㉣: 올라갔다
- ⑤ ㉤: 위복(爲福)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